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정책의 여파는 언제나 크다

“뛰니뛰니해도 머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돈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었던 사자도 ‘돈’ 하면 무덤에서 나온다는 세상이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만능인 신은 불신이라 하겠다. 그냥 농담으로만 들을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빌어봐야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뤄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결국 돈이 들어갈 때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진 않은가. 재판 받을 경우도 그렇다.

돈을 많이 투자해 우리나라의 ‘네노라’ 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전관예우 받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면 지은 죄보다 더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이

지 않을까.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제를 사기가 어렵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런 희한한 세상을 보통 사람들은 알거나 했겠는가. 이게 오늘날의 우리사회다. 인간사다. 그러나 물질질을 중요시하지 않겠는가. 사실 물질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시 되었다. 저장문화가 형성되어가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무한정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덩치 큰 돈도 감쪽같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더욱 가지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른다. 많은 돈을 쓸 일도 없으면서,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도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들이다. 물론 얼마 되지 않은 정부에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앞으로 적절한 고용성장을 기하기 위한 대책만은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지표를 보면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11월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의 동월보다도 약 1%가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면서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0만 명대에 그쳤다.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뽑지 않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신기루에 불과해져 버렸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도 거꾸로 시간강사 자리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유사하다. 또한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니까 행어나 실업률을 증가시켜버렸다. 때문에 정책당국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가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올리는 것이지만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미리 반응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음식점 종업원,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돼버린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겸임교수 2명이면 전임 1명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겸임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직장을 갖고 있기에 5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위험스러운 시간강사를 채용하겠다는가.

때문에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게 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다.

社說

‘알콜 중독’ 정부가 나서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콜과 관련된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알콜 중독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강의 중심의 형식적 교육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해 알콜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알콜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알콜 중독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VR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과 의정부·수원·부산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에 이미 가상현실 치료실이 구축된 상태다.

가상현실 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어지럼증 등 VR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통과자는 한 달에 2번씩 6개월, 총 11회를 거쳐 치료를 받게 된다.

본격 치료에 들어가면 혈중 알콜농도 0.15%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과도한 음주로 구토하는 상황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된다. 위험·협오스러운 경험을 통해 금주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인이 음주를 권유할 때 거절하고, 실제 금주에 성공해보는 가상훈련도 거친다.

실제로 VR치료는 음주로 인한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드러났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알콜관련 범죄를 현저히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독감 각별히 주의하자

매년 겨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감염병이 있다고 한다. 메르스, 에볼라도 아닌 바로 독감이다. 고대 중국 및 로마에서는 이 질병으로 몇 차례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 기록이 존재하며, 국내에서는 해마다 1천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감과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라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인 바이러스는 엄격히 구분된다.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가 1종이 단독 또는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결합하여 발병하는 질환이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고 있다. 또한 원인이 다른 만큼 증상도 다르다. 감기는 미열,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독감의 경우 호흡기 증상

38°C이상의 고열,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을 급성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감기는 특별한 치료 없이 1~2주 정도 지나면 증세가 호전되며 일반적으로 감기약 대부분이 감기 자체를 치료해 주는 약이 아니라 증상을 호전시켜 우리 몸이 스스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독감의 경우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방치할 경우 폐렴,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환자는 기침이 나오려 할 땐 사람들과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티슈나 소매로 입을 가린 채 비담을 향해 하는 게 좋으며, 비감염자는 손으로 눈코 입을 만지지 말고 환자 및 비감염자 모두 독감에 주의할 하자.

김승민 /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평소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숙지하자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최근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저번보다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얕아 체감 진동이 매우 컸고 향후 저번 경주지진처럼 여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으며 그 뜻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으로 갑자기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이미 옛말이다.

지진 발생 시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우선 지진으로 흔들릴 때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야 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승강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한다.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각자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은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v.kr)에 방문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현석 / 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 | | | | | | |
|---|----|---|---|----|---|---|
| 誅 | 벌 | 주 | 誅 | 斬 | 賊 | 盜 |
| 斬 | 벌 | 참 | 賊 | 도둑 | 도 | |
| 賊 | 도둑 | 적 | | | | |
| 盜 | 도둑 | 도 | | | | |

▷ 뜻 : 역적과 도적을 베어 물리침.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세) 별도 부록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체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알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저체중가량, 자활치료 중인 민혜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상해예방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임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 3분기 중 실시하였으나, 미지 여의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